

번역 앱 오역으로 테러범 된 관광객



▲ 포르투갈 리스본의 한 식당 앞에서 여행객이 경찰에 체포되고 있다. 사진=mcn,laradeed,ip 캡처

한 남성이 포르투갈 리스본을 여행하던 도중 음료를 주문하려다가 테러범으로 오해 받아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벌어졌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러시아어를 구사하는 아제르바이잔 출신의 여행객(36·남성)이 지난달 27일 리스본의 한 식당에서 석류 음료를 주문하려 했다.

이 남성은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켜고 러시아어로 문장을 만들어 포르투갈어로 번역한 뒤 식당 직원에게 보여줬다. 그런데 직원은 "수류탄을 갖고 있다"고 쓴 것으로 이해하고 곧장 경찰에 신고했다. 러시아어로 '석류(그라나트)'라는 단어와 '수류탄' (그라나타)이라는 단어가 유사한 탓에 벌어진 해프닝이었다.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 5명은 가게 밖에서 이 남성에게 "움직이지 말고 엎드리라!"고 명령한 뒤 접근해 손목에 수갑을 채워 경찰서로 연행했다.

경찰은 남성이 머물던 호텔 방도 수색했으나 아무런 테러 단서가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범죄자 데이터베이스에 남성의 이름이 있는지 확인하고, 대테러 부서에도 문의했으나 역시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 결국 경찰은 이 관광객을 풀어줬다.

포르투갈 경찰은 지난달 정부가 테러 위협을 한 단계 격상한 이후 포르투갈 전역에서 높은 경계 태세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 세운 세계 신기록



▲ 독일인 여행객들이 맥주 마시기 세계 기록을 갈아치운 후 환호하고 있다. 사진=inspain.news

스페인 마요르카 섬에서 휴가를 보낸 55명의 독일인 단체 여행객이 놀라운 기록을 세웠다. 세 시간 동안 마신 맥주의 양으로 세계 신기록을 갈아치운 것이다. 이들이 마신 맥주는 총 1,254잔이었다. 이는 지난 7월 또 다른 독일 관광객 단체가 세운 1,111잔보다 무려 143잔 더 많은 기록이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도전에 참가한 55명이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왓츠앱 메시지를 통해 도전자를 모집한 독일인 사업가 카이 우베 카만(62)의 제안을 받아들여 도전에 참가하게 됐다.

같은 목표를 갖고 한자리에 모였던 55명은 자신들이 이전 그룹보다 훨씬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푹푹 뭉쳤다. 도전은 오전 10시 30분에 시작돼 오후 1시경에 끝났다. 처음에 예상했던 정보보다는 한 시간이 더 걸렸지만 그룹에도 모두들 결과에 기뻐하며 자축했다. 55명이 두 시간 반 동안 마신 맥주의 양은 1인당 평균 22잔이었으며 총액짓값은 총 380유로(약 2,550달러)였다.

도전에 성공한 후 카만은 "사실 나는 평소 술을 많이 마시진 않는다"면서 "그날은 저녁 7시쯤 일찌감치 잠자리에 들었고 다음날에는 숙취 없이 상쾌하게 일어났다"며 웃었다.

2년간 절벽에 고립된 양 구조

영국의 한 절벽에서 2년간 홀로 생활하던 양이 인근 농부들에 의해 구조됐다.

5일BBC 등에 따르면, 전날 스코틀랜드 북부 크로마티 퍼스 해협이 250m 높이 절벽에서 '피오나'라는 이름의 양 한 마리가 구조됐다.

피오나는 최소 2년 전부터 절벽에 고립돼 살아왔다. 당시 바다에서 카약을 즐기다 피오나를 처음 발견한 질리언 터너는 피오나가 자의적으로 절벽에 올라갔다고 판단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넘어갔다. 그러나 이듬해 다시 그 장소를 방문했을 때 피오나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고립 상태를 확인했다.



▲ 다섯명의 농부들이 2년간 해안 절벽에 홀로 고립된 채 살아온 양 '피오나'를 구조했다. 사진=aol.com

이후 온라인 등을 통해 피오나의 사연이 확산했고, 구조하자는 목소리가 온라인 청원을 통해 모였다. 피오나는 '영국에서 가장 외로운 양'이라 불리며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다만 피오나가 어떤 경로로 250m 높이 절벽에 올라갔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알려진 바가 없다.

터너는 "스코틀랜드동물학대방지협회(SSPCA)와 산악 구조대 등에 연락했지만 모두 적극적으로 나서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구조에 나선 건 피오나의 사연을 접한 인근 농부 5명이었다. 이들은 중장비까지 동원한 끝에 피오나를 구조해 자신들이 운영하는 축사로 데려갔다. 현재 피오나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Kim's Handyman 리모델링전문

**페인트/ 부엌
화장실/ 마루
타일/ 캐비닛
윈도우/ 지붕수리
전기/ 플러밍
각종 리모델링**

작은일도 합니다!

**Kim's Handyman
562.833.0766**

Home Remodeling